



“일어나! 너는 한국축구의 미래야”

아쉬워하는 이승우 28일 오후(현지시간) 칠레 라세레나의 라포르타다 경기장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 축구대회 16강전 한국과 벨기에의 경기. 0-2로 패한 뒤 이승우가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붉은 악마” 한국 축구가 ‘원조 붉은 악마’ 벨기에를 상대로 2년 연속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한국 17세 이하 축구 대표팀은 29일(한국시간) 칠레 라 세레나에서 열린 2015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 월드컵 16강전 벨기에와 경기에서 0-2로 졌다.

페널티까지 얻어냈으나 끝내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한국 축구가 10명이 된 벨기에에 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바로 지난해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그랬다. 조별리그 1무1패로 탈락 위기에서 벨기에와 3차전을 치른 한국은 전반 44분 벨기에 수비수 스테벤 드루프가 퇴장을 당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0-0으로 전반을 마친 한국은 후반 들어 선제공격을 노리며 공세에 나섰다. 오히려 후반 33분 안 페르 통연에게 결승골을 내주고 0-1로 졌다. 당시 벨기에에는 앞선 두 경기에서 모두 이겨 16강 진출을 확정, 한국을 상대로는 1.5군이 출전하는 여유를 보인데다 후반

U-17 월드컵 16강전 최진철호, 벨기에에 0-2 아쉬운 패 FIFA 대회 브라질 격파·무실점 조1위 ‘새 역사’ 위한

부터 10명만 뛰는 등 불리한 여건이었으나 한국을 제압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1년 만에 ‘형님’들의 설욕을 다짐하고 나선 동생들이었지만 상황은 비수했다. 조별리그에서 브라질, 기니를 연파하고 2승1무로 16강에 진출해 기세가 좋았던 한국 U-17 대표팀은 경기 시작 11분 만에 선제공격을 내줘 흔들리더니 후반 22분에 추가 골까지 얻어맞고 휘청거렸다. 반전의 기회는 후반 25분에 찾아왔다. 상대 수비수 르루안이 페널티 지역 안에서 반칙을

저질러 퇴장당하면서 페널티 기회가 한국에 찾아온 것이다. 골을 넣었다면 2-1로 추격하고 남은 시간에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반전 드라마’를 쓰게 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키커로 나선 이승우(FC바르셀로나)가 한 차례 멈춰서면서 찬 슈팅이 벨기에 골키퍼에 막히면서 한국의 8강 진출 길도 함께 막혔다. 이번에도 10명이 된 벨기에 수비벽을 뚫지 못했다. 16강에서 짐을 싸게 된 이번 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아쉬움이 큰 월드컵으로 남게 됐다. 여타 다른 대회보다도 매 경기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면서 16강 아닌 그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최진철호는 조별리그 1차전에서 FIFA 주관 대회에서는 처음 브라질을 꺾었다. 전 연령대를 통틀어 한국 남자축구가 과거 친선 경기에서 브라질을 꺾은 적이 있지만, FIFA 대회에서 승리한 것은 처음이었다. 2차전에서는 ‘아프리카의 복병’ 기니도 1-0으로 승리하며 사상 처음 조별리그 2연승을 기록했다. 그러면서 단 두 경기만에 16강을 확정지었다. 3차전에서는 잉글랜드와 0-0으로 비기며, 무실점으로 조 1

위를 차지했다. FIFA 주관 대회에서 한국 축구가 조 1위를 한 적은 있지만, 무실점을 기록한 것은 역대 처음이었다. 조별리그 2승1무(승점 7)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조별리그와 함께 한국 남자축구를 통틀어 최고의 성적이다. 2002년 월드컵에서는 미국과의 경기에서 1실점을 한 바 있다. 최진철호의 무실점은 이번 대회 24개 참가국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24개 참가국 중 실점이 없는 팀은 한국이 유일했다. 이런 자신감으로 16강을 넘어 8강 이상의 성적이 기대됐다. 하지만, 조별리그에서 한 골도 허용하지 않았던 골을 벨기에에 두 번 내주며 무릎을 꿇고 말았다.

연합뉴스

FIFA 회장 선거 ‘7파전’

플라티니 등 7명 후보 확정...정몽준은 출마 철회

FIFA 차기회장 선거 최종후보
내년 2월 26일 치러지는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선거에 8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 세이크 살만 빈 에브라힘 알 칼리파** (49세, 바레인)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장
- 알리 빈 알 후세인** (39세, 요르단) FIFA 부회장, 요르단 왕자
- 제롬 샹파뉴** (57세, 프랑스) 2010년까지 FIFA 국제경기 불러들인 축구인
- 토코 세랄레** (62세, 남아프리카공화국) FIFA 반인종차별위원회 위원, 정치가, 사업가
- 무사 빌리티** (48세, 라이베리아) 라이베리아 축구협회장
- 지아니 인판티노** (45세, 스위스) UEFA 사무총장
- 미셸 플라티니** (60세, 프랑스) UEFA 회장

연합뉴스

‘부패 스캔들’로 얼룩진 국제축구연맹(FIFA)을 이끌어갈 차기 회장 후보군이 확정됐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FIFA는 28일(현지시간) 내년 2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리는 차기 회장 선거에 나설 7명의 후보군을 발표했다. FIFA는 지난 26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아 이를 검증해 후보 자격자를 선정했다. 후보 등록을 마친 이들은 미셸 플라티니(60) 유럽축구연맹 회장 등 총 8명으로 이중 7명이 후보로서 합격점을 받았다. 8명 중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표팀 전 주장인 데이비드 니카르(51)는 5개국 이상의 축구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채우지 못해 탈락했다. 제프 블라터 회장으로부터 의문의 200만 스위스프랑(약 24억 원)을 받아 90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플라티니 UEFA 회장도 후보 자격을 얻었다. 플라티니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그의 자격정지 90일 징계가 내년 2월 회장 선거전까지 끝난다는 점이 고려됐다. 회장 후보로는 플라티니를 비롯해 프랑스 외교관 출신의 제롬 샹파뉴(57), UEFA 사무총장인 지아니 인판티노(45·스위스) 등 유럽 출신이 3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프리카 출신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사업가 겸 정치인인 토코 세랄레(62), 라이베리아 축구협회장인 무사 빌리티(48) 등 2명, 아시아 출신은 아시아축구연맹(FIFA)의 수장인 세이크 살만 빈 에브라힘 알 칼리파(50·바레인) 회장과 FIFA 부회장인 알리 빈 알 후세인(40) 요르단 왕자 등 2명이었다. 출마 의사를 밝혔던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은 FIFA 윤리위원회로부터 6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지난 26일 회장 출마를 공식 철회한 바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장애인체전 ‘금빛 낭보’

양궁·육상·탁구 등서...70대 이종배씨 역도 동메달



제 35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광주·전남 선수단의 ‘금빛 낭보’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의 김인숙은 이날 양구 용화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66kg급 이하 스쿼트와 파워리프트종합 부문에서 각각 금메달을 따 2관왕에 올랐고 데드리프트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73세의 이종배씨는 남자 역도 72kg급 이하 벤치프레스 종합 부문에서 동메달을 따는 ‘노익장’을 과시했다. 김금희도 여자 역도 55kg급 이하 파워리프팅 절단 부문에서 금메달을 들어올렸다. 김금희는 55kg급 이하 벤치프레스 종합과 웨이트리프팅에서도 각각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 선수단은 이날 금메달 4개를 비롯, 은메달 7개 등을 획득했다. 광주도 양궁을 중심으로 이날 오후 6시 현재 금메달 6개를 수확하는 등 순조로운 금빛 행보를 이어갔다. 조장문은 원주 양궁장에서 열린 여자 리커브 70m·60m에서 금빛 과녁을 명중시키며 2관왕을 차지했고 정진영·김관속도 각각 여자 컴파운드 60m·리커브 70m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육상에서는 김하은이 강릉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육상 400m(T12) 결승에서 대회신기록(1분 15초 83)을 수립하는 ‘금빛 레이스’로 광주 선수단에 금메달을 안겼다.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경진(29·광주시청)은 최종육과 짝을 이룬 탁구 남자복식(TT4) 결승에서 전남을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내달 1일 영암서 국내 최대 자동차 경주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엔페라컵’ 최종전

국내 최대 규모 아마추어 대회인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엔페라컵’ 최종 6전이 11월 1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다.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은 국내 유일하게 승용차량과 여가용 차량(RV)이 함께 하는 대회다. 매 경주마다 10개 종목에 200여 차량이 참가해 일반인의 모터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최종전은 챔피언을 차지하기 위한 선수 및 팀 관계자들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최고 종목인 ‘엔페라 GT-A’는 400마력 이하 차량이 참가한다. 166점을 확보한 민수홍(디원스팩)이 사실상 챔피언을 확정했으며, 129점의 정남수(D1Sports)와 122점을 기록한 박재홍(원웨이 모터스포츠)의 2위 경쟁이 뜨겁다.

SUV 대표 종목인 엔페라R-300에서는 원정민(GHP)이 135점을 차지해 112점의 김태환(세비스트)과 23점의 차이가 있으나 최종전 성적에 따라 챔피언이 바뀔 수 있어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는 승부가 기대된다. 이번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최종전에서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경기 전날인 10월 31일 오후 6시부터 버버큐파티와 불꽃놀이 등 전야제를 치른다. 최종전 당일에도 경주장 체험주행, 경품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관람객에게 경기 관련 이외에 또 다른 즐거움을 안겨줄 예정이다. F1경주장 상설트랙(3.045km)에서 개최되는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엔페라컵’ 최종전 입장은 무료이며, C스탠드에서 관람할 수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K리그 12구단 마스코트 담은 X-mas 썸 나와

K리그 클래식(1부)리그의 구단 마스코트를 담은 크리스마스 썸이 나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9일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2015 크리스마스 썸을 발행하고 내년 2월까지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결핵되지 2015, K LEAGUE와 함께!’를 이름으로 발행된 이번 크리스마스 썸에는 K리그 클래식 12개 구단 마스코트들이 그라운드를 뛰어다니는 역동적이고 친근한 모습이 담겨있다. 이번 K리그 크리스마스 썸 발행은 지난 3월 대국민 소재공모를 통해 한국 프로축구 캐릭터가 올해의 썸 소재로 채택

되면서 이뤄졌다. 연맹은 크리스마스 썸을 통해 축구팬은 물론 국민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발간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크리스마스 썸은 1시트에 3000원으로 전국 우체국 창구와 대한결핵협회의 온라인 썸 쇼핑몰(http://love Seal.knta.or.kr)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연맹과 K리그 클래식 12개 구단은 클래식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 내·외부에서 현장 결핵검진, 결핵 홍보 영상 송출, 크리스마스 썸 현장 모금 등 다채로운 결핵퇴치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상화 빙속 1000m 우승

500m 종목에서 암밴드를 떼어내 실력 처분을 받은 ‘빙속여제’ 이상화(26·서울 일반)가 1,000m에서 우승하며 전날 실력의 아쉬움을 금메달로 대신했다. 이상화는 29일 서울 노원구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제50회 전국남녀 종목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겸 2015-201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파견대표 선발전 여자 1,000m에서 1분18초54로 우승했다. 지난해 쇼트트랙에서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전향한 박승희(화성시청)가 1분20초03으로 준우승했고, 전날 500m에서 이상화의 실격으로 1위에 올랐던 장미(한국체대)가 1분20초44로 3위에 올랐다. 연합뉴스